

중국의 중부굴기(中部崛起) 정책에 대한 소고

김 동 하 |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중부지역 6개성에 대한 발전전략인 중부굴기(中部崛起)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6년 5월에는 국무원에서 '중부굴기 정책 조치(2006. 5)'가 발표되어, 명확한 정책목표와 주요조치가 명시되었고, 2007년 4월에는 국무원 산하에 중부굴기 판공실이 설치되어 정책 집행주체가 확정되는 등 최근 2년내 중부굴기 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최근 명확화, 실체화 되고 있는 중부굴기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중부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중부굴기 정책 목적과 정책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최근 변화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주목하였으며, 선행 지역발전 정책인 서부대개발 정책과 동북진흥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가 중부굴기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부굴기 정책이 가진 한계를 고찰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중부굴기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전망과 우리기업에 대한 간략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하였다.

첫째, 중부굴기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다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둘째, 중부굴기 정책은 호복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셋째, 중부굴기 정책은 중국에 투자를 영위하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투자 다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중국 지역개발, 중국 지역발전, 중부굴기, 중부지역 발전전략, 중부굴기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중부지역 6개성에 대한 지역 발전전략인 중부굴기(中部崛起)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6년 5월 19일에는 국무원에서 ‘중부굴기 정책 조치(2006. 5)’가 발표되어, 명확한 중부굴기 정책목표와 주요조치, 그리고 이를 수행할 주무부처가 명시되었고, 2007년 4월에는 국무원 산하에 중부굴기 판공실이 설치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집행 주체가 명확해지는 등 최근 2년내 중부굴기 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현재 서부대개발 정책, 동북진흥정책 등의 지역발전 전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지역을 발전대상으로 하며, 그 정책배경과 실행수단도 상이하다.

본고는 최근 명확화, 실체화 되고 있는 중부굴기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중부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고, 3장에서는 중부굴기 정책목적과 과정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기존지역 발전정책과 비교하였고, 문헌을 중심으로 이들 기존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지역 발전정책이 중부굴기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중부굴기 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고찰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중부굴기 정책 추진방향 전망과 우리기업에 대한 간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중부굴기(中部崛起)는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중부지역 6개 성의 발전전략을 위한 관련 정책 및 기타 법규 등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다. 사전적으로는 ‘중부(지역)이 진흥되어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중부궤기’라는 중국어 음이 아닌 우리 한자어 독음인 ‘중부궤기’로 표기하였다. 일부 한국 언론매체는 ‘중부궤기’로 적기도 하지만, 이는 ‘중부궤기’에 대한 뜻을 우리 식대로 적은 것이다. ‘궤기(발분하여 일어남)’의 우리 한자어인 ‘蹶起’ 중 ‘蹶’자의 중국어 뜻은 ‘넘어졌다’ 혹은 ‘실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중부궤기’라는 한국식 표현은 주의를 요구된다.

2. 선행 연구

선행 연구 조사결과, 중국 지역개발 정책 관련 논문들은 지역개발 전략이 지역격차(혹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 논문과 기존 지역개발 정책(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연구 논문으로 양분할 수 있다. 문헌 조사결과 ‘중부굴기’를 제목 혹은 주제어로 가진 관련 논문은 영문저널 및 국문저널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²

먼저 지역개발 전략이 지역격차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는 이영조·박정자(2000), 이상화 “중국의 지역격차 분석(1995)”, 장캉즈·서운석 “중국정부의 지역개발정책 수행에 따른 지역간 효율성 변화 분석(2006)” 등이 있다. 지역개발 전략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는 J.F. Brun(2002)와 S. Horowitz, C. Marsh의 “Explaining regional economic policies in China: interest groups, institutions, and identities(2000)”, 그리고 Shuming Bao et al. “Geographic factors and China’s regional development under market reforms, 1978~1998(2000)” 등이 있다.

새로운 지역개발 전략을 고찰한 논문으로는 서운석(2006), 박인성·서운석 “중국의 신균형발전전략에 관한 고찰(2006)”이 있으며, 이규택의 “중국 중서부지역 경제발전 전략(1998)”은 9.5기간(1996~2000년)부터 등장한 지역간 경제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중서부 전략 목표를 소개하였다.

기존 지역개발 정책 관련 논문으로는 백택선 “중국 서부개발과 한국기업의 투자증대 방안(2004)”, 박장재 “중국의 지역경제 발전 현황과 서부대개발 정책의 의의(2000)”, 장강지·서운석(2005) 등이 있으며, 김재기 “중국의 민족문제와 서부대개발: 정치경제적 배경과 딜레마(2001)”은 서부대개발의 정치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2. 영문 저널 검색은 Science Direct와 BSC(Business Source Corporate) EBSCO를 이용하였고, 국문 저널은 한국학술정보(K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을 이용했다. 영문 저널 검색시, ‘중부’에 대응하는 영문 검색어는 인민일보 영문판 및 China Daily에서 통칭한 ‘Central Region of China, Central China, Middle China’ 등을 활용하였다(검색일자: 2007년 6월 9일).

동북 3성 관련 논문으로는 강승호(2005), 이기호 “중국 동북 3성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2004)”, 황재호 “중국의 지역개발정책-동북 3성의 경제상황과 발전전략을 중심으로(2003)”, 신상협 “중국 개발전략 지역의 경제협력 환경이 환발해 경제권에 미치는 영향: 동북 3성 무역환경과 투자환경을 중심으로(2000)” 등이 있다.

II. 중부지역 현황과 특성

1. 중국의 지역구분

중국의 지역구분은 경제지리학(학술적) 구분법, 정책적 목적에 의한 행정적(정책적) 구분법으로 양분된다. 전자의 경우, 각 학자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구분법이 상이하여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후자의 경우는 1950년대까지는 6대구로 구분하였으며, 1958년에는 7대협력구(동북, 화북, 화동, 서남, 서북, 화중, 화남)로 구분하였다. 7대협력구는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학계 및 정부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구분법 중 하나이다. 이후 1961년에 화중과 화남이 중남으로 합병된 6대구로 바뀐다.

이후 중국의 지역구분은 경제 5개년개발 계획에 따라 바뀌는데, 6.5기간(1981~1985년)에는 연해지구, 내륙지구, 변경소수민족지구로, 7.5기간(1986~1990년)에는 동부연해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로, 8.5기간(1991~1995년)에는 연해지구, 내륙지구, 변경소수민족지구, 빈곤지구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10대 경제구로 분류한 바 있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정부 각 부처는 대체로 7대 구분법을 따르고 있다(王雷, 2006: 51-53).

중부굴기 정책에서 규정한 ‘중부지역’은 중국을 동부, 서부, 중부로 구분하는 3분법(三分法)에 그 지역 구분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3분법이 정식으로 제시된 것은 198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7차 5개년 계획’을 찾을 수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위 ‘7.5 계획’에서 “중국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 발전 전략을 구사한다”라고 천명하였다(周紹森, 2006: 21).

당시 구분된 3개 지역을 보면, 먼저 동부지역에는 요령성,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둥성, 강소성,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광둥성(1988년에 성으로 승격된 해남도 포함) 등 10개 성, 직할시가 포함되었고, 중부지역에는 산서성, 내몽고자치구, 길림성, 흑룡강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등 9개 지역이, 서부지역에는 섬서성, 감숙성, 청해성, 영하자치구, 신강 자치구, 사천성(1997년에 직할시로 독립된 중경시 포함), 운남성, 귀주성, 광서자치구, 서장 자치구 등 10개 지역이 분포되어 있다.

1985년 이후 3분법에 따른 지역구분 기준은 서부대개발, 동북진흥정책 등의 지역 발전정책의 추진으로 조정된다. 먼저 서부대개발 정책이 2000년 12월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되면서, 중국 국무원은 별도의 법규³를 통해, ‘서부지역’을 1985년에 구분한 기존 서부지역 11개 지역(사천성에서 직할시로 독립한 중경시 포함)에 내몽고 자치구를 포함시켜 12개 지역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동북진흥정책은 200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16회 전국대표대회(十六大)에서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의 노후 공업기지 진흥정책⁴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중부지역으로 구분되던 길림성과 흑룡강성이 지역 발전정책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중부지역 해당 성중 중앙정부 지역 발전정책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은 산서,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 등 6개 성이 남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도 중부굴기 정책에 해당되는 6개 성을 중부지역으로 지칭한다.

3. 국무원은 2000년 12월 28일에 ‘서부대개발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국무원 [2000]33호)’를 공포한 바 있다. ‘통지’ 전문은 중국 중앙정부 포털인 www.gov.cn의 정책 법규란 참조(검색일자: 2007년 6월 4일).

4. 자세한 동북진흥정책 내역과 배경은 국무원 동북진흥 판공실 홈페이지인 <http://chinaneast.xinhuanet.com>를 참조할 것(검색 일자: 2007년 6월 5일).

2. 중부지역 특성

(1) 중부지역 현황

<표 1>은 2005년 기준, 중국 내 중부지역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내 총인구의 26.89%가 거주하고 있는 중부지역은 중국 국토의 10.66%를 점유하고 있어 다소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5년 말 기준 중국 1성당 평균 인구인 4,217만 명을 산서성을 제외하고 모두 상회하고 있으며, 하남성 인구는 1억 명을 육박하고 있다.

중부지역의 특성중 하나는 농촌인구 비중이 높은 점을 들 수 있다. 2005년 중국 농촌인구 비중은 57.01%이나, 중부지역은 모두 이를 상회하는 산서성 57.89%, 안휘성 64.5%, 강서성 63%, 하남성 69.35%, 호북성 56.8% 호남 63%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중부지역은 중원지역에서 나타나는 소농문화(小農文化), 즉 현재의 생활수준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며, 진취적으로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 전통적인 문화사상을 나타내고 있다(楊云彦, 2003: 45).

중부지역은 1979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먼저 개방한 동남 연해지역에 대한 노동력 제공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가공 및 생산기지로 역

<표 1> 2005년 중국 중부지역 현황

(단위: %)	GDP 비중	국토 면적 비중	인구수 (만명) / 비중	공업생산 비중	수출입 비중	FDI 기업수 비중
산서성	2.11	1.62	3,355(2.56)	1.87	0.39	0.29
안휘성	2.71	1.45	6,120(4.68)	1.90	0.64	0.83
강서성	2.05	1.73	4,311(3.29)	1.23	0.28	1.53
하남성	5.35	1.73	9,380(7.17)	4.15	0.54	1.1
호북성	3.29	1.93	5,710(4.36)	2.39	0.63	1.64
호남성	3.29	2.2	6,326(4.83)	1.95	0.42	1.04
중부 합계	18.8%	10.66%	26.89%	13.49%	2.9%	6.43%

주: 공업생산비중만 2004년 말 기준.
자료: 중국통계연감(2006).

합이 전환되고 있다. 6개성의 중국 내 수출입 비중이 2.9%에 그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傍證)한다. 또한 2005년에 설립된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수 역시 중국 전체의 6.43%에 불과하여 대외 개방도 혹은 FDI 유치를 위한 환경이 미흡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 부족한 공업화, 도시화, 시장화

중국 경제지리학에서 중부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은 자원중심, 농업중심 지역으로 서술된다. 또한 중부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서술법 중 하나는 “삼화(三化)”⁵ 즉 공업화, 도시화, 시장화가 부족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1979년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공업화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경제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중 하나는 중국의 경우 공업화 정도가 도시화 정도를 앞선다는 점이다. 실제로 1996년 중국의 도시화율과 공업화율(GDP 총량 중 공업생산액 비중) 비례는 0.69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시기 OECD 국가의 평균치인 1.4~2.5와 비교하여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사례를 보면, 공업화 초기 및 중기단계에는 도시화가 공업화에 의해 견인되며, 공업화 말기에 도달하면 그 이후 도시화는 3차산업 발전에 의해 견인됨을 알 수 있다(趙凌云, 2007: 210-213).

중국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농촌지역에서 향진기업의 발전으로 도시화 없는 공업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중부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처럼, 2005년 중부지역 중 호북성을 제외한 5개성의 도시화율은 중국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반면에 공업화율은 산서성과 하남성 두 곳이 중국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5. 많은 문헌은 중부굴기 목표 및 목적으로 ‘삼화(三化)’를 제시하고 있으며, 평샤오화의 경우에는 ‘四化’ 즉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산업화를 추가로 제시한 바 있다(鄧小華, 2004: 122-123).

〈표 2〉 2005년 중부지역 도시화 및 공업화 현황

(단위:%)	도시화율(A)	GDP 중 2차 산업 비중	공업화율(B)	A/B
산서성	42.11	56	50.3	0.8372
안휘성	35.5	41.56	34.1	1.0410
강서성	37.1	47.21	35.88	1.0339
하남성	30.65	52.58	46.73	0.6559
호북성	43.2	42.78	30.96	1.3951
호남성	37.0	40.23	33.98	1.0888
중국 전체	43.0	47.5	42.0	1.02

주: 도시화율은 성인구중 도시 거주민 비율, 공업화율은 성 GDP 총량중 공업생산액 비중.
자료: 중국통계연감(2006).

(3) 양호한 교통망 인프라

중부지역은 중국의 최대 물동량이 움직이는 2개의 동서 간 해운망(장강, 황하)과 1개의 남북 철도망(京九鐵道)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먼저, 북경에서 홍콩 구룡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2,538km의 경구철도(京九鐵道)는 1996년 9월에 개통되었으며, 중국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경구철도는 중부지역 중 산서성, 하남성 정주시, 호북성 무한시, 호남성 장사시를 경유한다.

또한 1993년에 착공되어 2006년에 2차 물막이 공사를 끝내고, 2009년에 완공을 앞둔 장강삼협댐 공정으로 인해 장강 내수면 물류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총연장 6300km의 장강은 상해를 동쪽기점으로 하여 안휘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을 관통한다. 또한 중부지역의 산서성과 하남성을 통과하는 황하의 총연장 5464km 규모이다.

〈표 3〉에서처럼, 중부지역은 중국 전체 철도망 중 23.1%, 내륙수운 총연장 중 26.5%를, 총도로망 중 24%를 점유하는 등 GDP 및 공업생산비중 대비 양호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표 3> 2005년 중국 교통 인프라 현황

구분	여객수송 (만명)	화물수송 (만톤)	철도망 (km)	내륙수운 (km)	도로망 (km)
중국 전체	1,847,018	1,862,066	75,437.6	123,263	1,930,543
중부합계	438,702	437,782	17,457.1	32,635	463,507
중부비중	23.8%	23.5%	23.1%	26.5%	24%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6).

III. 중부굴기 목적과 정책화

1. 중부굴기 정책 목적

(1)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전환

먼저 중부굴기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은 중국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이전에는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지역간 균형성장을 추구해 왔으나, 실제로 지역개발보다는 군사안보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서부 내륙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예는 삼선건설(三線建設)⁶이 될 것이다.

1979년,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지역발전정책은 불균형 발전 정책으로 전환되어, 경제개발에 유리한 지리적 환경을 갖춘 동부연해지역을 우선 개발하였으며, 그 효과를 내륙지역으로 파급(spillover)시키는 지역발전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로 요약되는 불균형 발전정책은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켰다 (Brun et al., 2002: 168).

6. 1960년 중반 이후, 마오쩌둥(毛澤東)은 미국의 침입을 가정하여 전국을 제1선(동남 연해), 제2선(호북성), 제3선(서부 내륙)으로 구분하고,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등 내륙지역에 중화학공업 기지를 건설하였다. 이 시기 지역 발전정책 기조는 '후방(내륙) 지역에 공업기지를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점차 기타지역으로 공업 분포를 조정함'이었다.

〈표 4〉 중국 지역발전 정책의 변화

구분	기간	발전 전략	해당 정책
균형발전 정책	1949~1978년	산업의 공간적 균형 분포	삼선건설
불균형 발전정책	1979~1990년	경제이익의 최대화	先富論에 입각한 장강 및 주강삼각주, 沿海 지역개발
신균형발전 정책	1991~현재	효율과 공평의 조화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자료: 高伯文(2004), 이영조 외(2000), 서운석(2006)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

이에 중국정부는 1990년대에 지역발전정책을 다시 균형 발전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전환점은 장쩌민(江澤民) 총서기가 1999년 11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서부개발 정책을 추진하기로 천명한 것이다. 이후 후진타오(胡錦濤) 정부 역시 균형 발전정책을 이어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이전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방적인 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했던데 반해, 지역간(동부, 서부, 중부) 협력하여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신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후진타오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진흥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마지막 남은 중부지역 역시 별도의 균형 발전정책 추진을 통해서 타 지역(서부와 동부) 간 협력 발전하도록 요청되었다. 이러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중부굴기 정책의 목적이자 추진배경인 셈이다.

(2) 신 소외지역의 경제 침체 방지

중부지역은 경제지리적으로 서부와 동부 사이에 낀 지역으로, 정책적으로도 그동안 소외지역에 놓여 있었다. 즉 30년간 동남연해지역에서의 개혁개방 정책은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소득격차를 벌려 놓았으며, 2000년부터 시작된 서부대개발 정책으로 인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중부 함몰(中部塌陷)’⁷ 현상을 초래하였다. ‘중부 함몰’은 중앙정부가 중부

7. 1999년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중부지구 정책연구’ 연구를 통해 서부대개발 정책을 추진 시, 중부지역이 ‘중부 함몰’ 상태에 빠질 것을 경고했다. 1979년 개혁개방 정책이후, 동남연해지역의 발전을 위해 저임 노동력, 저가 원자재 및 에너지, 식량자원을 제공하던 중부지역을 빼고 서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경우, 동부와 서부 사이에 낀 중부지역의 경제적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中

굴기 정책에 착수하면서 제시한 표현으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발전이 정체된 중부지역이 자연스럽게 주위 지역의 성장으로 인해 함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國務院發展研究中心, 2006: 9-17). 따라서 중부굴기의 주요 정책적 목적은 ‘중부 함몰’을 방지하는데 있다.

2000년부터 본격적인 정부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서부지역 중 내몽고 자치구 및 신강 자치구 등 일부지역은 이미 ‘삼화(三化)’ 수준이 중부지역을 초과 하고 있다. 특히 강서성과 안휘성 두 곳은 중국 내 하위 10위에 속해 있으며, 안휘성은 서부지역에 위치한 5개 자치구보다도 뒤쳐져 있는 ‘빈곤’ 지역이다. 이는 안휘성의 1차 산업 비중이 중국 평균치보다 5.4% 포인트 높은 18%에 달한 것도 요인 중의 하나이다.

<표 5>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⁸를 통해서 본 1979년도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1인당 GDP 차이는 0.264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는 0.483까지 확대되었고, 2001년부터는 0.53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매년 그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1979년과 2004년의 동부지역과 중부지역간 차이와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서부지역보다 경제력이 앞선 중부지역이 동부지역과의 격차 범위는 서부지역 대비 더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중국의 각 연도 지역별 1인당 GDP 현황

(단위: 위안)	1979	1992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동부	470	2,902	8,344	11,334	12,811	14,159	16,306	19,351
중부	325	1,592	4,167	5,631	5,996	6,519	7,257	8,789
서부	290	1,401	3,591	4,687	5,007	5,473	6,217	7,430
변동계수	0.264	0.416	0.483	0.498	0.535	0.544	0.559	0.550
중부/동부	69.15	54.86	49.94	49.68	46.80	46.04	44.51	45.42
서부/동부	61.70	48.28	43.04	41.35	39.08	38.65	38.13	38.40

자료: 중국통계연감(각 호).

部崛起之戰略論衡’, 21世紀經濟報道 (2006년 3월 17일).

8. 각 지역 1인당 주민소득 수준차이 측정법 중 하나임. 어떤 변수들의 표준편차를 평균치로 나눈 값으로 그 변수의 분포 정도를 나타냄.

1979년 중부지역의 1인당 GDP는 동부의 69%에 달했다. 그러나 1992년에 이르러서는 54.8%로 떨어졌으며, 1996년부터는 절반 이하인 49.9%를 기록한 후, 2003년에는 최저치인 44.5%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0년에서 2004년간 두 지역간 1인당 GDP 비중을 보면, 서부지역은 동부지역 대비 2.95% 포인트 감소한데 반해, 중부지역은 동부지역 대비 4.26% 포인트 감소하는 차이를 보였다. 즉 ‘중부 함몰’ 현상이 최근 5년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2005년도 도시민 가처분 소득을 보면 중국 전체가 10,493 위안(元)을 기록하였고, 중부지역 6개 성은 산서성 8,913위안, 호북성 8,785위안, 하남성 8,667위안, 호남성 9,523위안, 강서성 8,619위안, 안휘성 8,470위안 등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호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5개성 모두 9,000위안 이하에 머물고 있다(중국통계연감, 2006: 357). 이는 서부지역 12개 성, 자치구 중 내몽고 자치구(9,136위안), 광서 자치구(9,286위안), 중경시(10,243위안), 운남성(9,265위안), 저장 자치구(9,431위안) 등 5개 지역은 9,000위안대를 초과하고 있으며, 동북 3성 중 요령성(9,107위안)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3) 삼농 문제 해결

삼농(三農. 농촌, 농민,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관건 중 하나는 중부지역의 발전에 있다. 중부지역의 국토면적은 중국 전체의 10.6% 수준이나, 경지면적은 23.5%에 달한다. 또한 중국 전체인구의 27%가 중부지역에 있으며, 농촌인구 중 32%는 중부지역에 살고 있다. 따라서 중부지역의 삼농 문제 해결 없이 중국 전체의 삼농 문제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삼농 문제는 신중국 설립 후인 1949년부터 중앙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온 문제이다. 특히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새해에 처음 발표하는 중요 정책문서인 ‘1호 문건(一號文件)’⁹이 최근 4년간 연속하여 삼농 문제를 다룬

9. ‘1호 문건’이 처음 등장한 1982년에도 농촌개혁 문제가 주제였고, 2004년 이후 4년 연속 ‘1호 문건’의 초점은 삼농 문제이다. 2007년 ‘1호 문건’의 핵심내용은 농업현대화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운동의 추진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삼농문제의 심각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郭生練, 2005: 66). 중국인구의 60%에 이르는 7억 5

<표 6> 2005년 중부지역 농업 현황 및 주요 작물 생산 비중

(단위: %)	경지면적 비중	식량	콩	면화	유지류	연초
산서성	3.53	2.0	1.7	1.8	0.69	0.22
안휘성	4.59	5.38	4.42	5.68	8.79	0.96
강서성	2.3	3.63	1.15	1.52	2.47	0.78
하남성	6.24	9.46	3.44	11.8	14.6	10.7
호북성	3.81	4.49	3.0	6.56	9.55	4.13
호남성	3.04	5.53	2.62	3.46	4.58	7.93
합계	23.51	30.49	16.33	30.62	40.68	24.72

주: 식량에는 쌀, 밀,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등, 유지류에는 땅콩, 유채종, 깨 등이 포함.
자료: 중국통계연감(2006).

것은 후진타오 신정부에서의 정책 우선도에서 중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삼농 문제의 심각성은 도농간 소득격차, 농촌지역의 과잉 노동력, 농산품 시장의 공급과잉 문제, 농촌의 자체 투자자금 부족, 농촌빈곤의 가속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최의현, 2004: 183-184).

<표 6>에서처럼 중부지역은 2005년 말 기준으로 중국 경지면적의 23.5% 토지에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30.5%를 책임지고 있는 중국의 중요한 농산물 생산기지이다. 특히 생필품인 식용유 생산의 원료인 유지류의 경우, 생산비중은 40.6%에 달한다. 따라서 삼농 문제 해결을 위한 중부지역 농업 부문의 집중지원은 중부굴기 정책목적 중의 하나일 것이다.

천만 명의 농민이 사는 농촌과 도시간 빈부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005년 도시주민의 1인당 수입은 10,493위안인 반면 농민은 도시주민 수입의 31%인 3,255위안에 불과하다. 소득증가율도 도시(9.6%)와 농촌(6.2%)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농업세를 폐지했고 2007년부터는 빈곤지역 농민자녀의 학비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新華網, 2007/1/29).

2. 중부굴기의 정책화

중부굴기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부터 호북성에서 제시된 발전전략에 가장 먼저 등장한다. 호북성 사회과학원은 ‘호북경제 발전모델의 선택’이라는 보고서에서 호북성이 중점산업 위주로 경제개발구 권역내 발전전략을 취함으로써 중부지역의 발전(中部崛起)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李衛武, 1988: 5-6).

중국 공산당 중앙당 차원에서 최초로 중부굴기가 당의 방침으로 제시된 것은 2003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16기 3중전회에서이다. 3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부지역의 우세를 발휘하도록 하여 빠른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중부굴기 정책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 국무원(행정부)의 집행을 위한 규정마련 → 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부) 보고 및 승인 → 지방정부 규정 마련과 집행’ 등 정책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¹⁰

그 결과, 2006년 4월에 총 36조로 구성된 중앙정부 정책조치인 ‘중부지구 굴기의 약간 의견(총 36조 의견)’이 공포되었다. ‘총 36조 의견’은 먼저 중부 굴기 정책에 해당되는 중부지구를 6개 성으로 확정하였으며, 첫째 중부지구를 식량기지, 에너지 및 원재료 기지로 육성할 것을 규정하였다. 둘째, 중부 지역 노후 공업기지 진흥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¹¹ 개혁과

10.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부굴기가 국정 목표로 제시된 것은 2004년 3월 5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에서 ‘중부지역 진흥(중부굴기) 정책을 촉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이다. 2004년 9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16기 4중전회에서도 ‘중부지역 진흥 촉진’이 당 ‘결정’에 포함되었다. 2004년 12월 5일, 원자바오 총리는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 ‘중부굴기’를 2005년도 6대 중점 업무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2005년 3월 전인대 10기 3차 회의에서도 원자바오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중부지역 진흥 계획과 조치를 연구하여 제정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중앙정부는 정책, 자금, 중대 건설 프로젝트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전인대에 보고 하였다. 2006년 3월 27일, 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胡錦濤)는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중부굴기의 연구를 촉진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2006년 말에 국무원은 ‘중부굴기 업무 판공실’의 설립을 승인하였다(人民日報, 2004/3/17; 新華網, 2006/3/28).

11. 중국어로 증치세(增值稅)이며, 본고에서는 부가가치세로 표기함.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의 자원소비형 도시와 기업을 자원재활용형으로 전환하며, 특히 자원고갈형 기업은 파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셋째, 주요 중부지역이 장강 내륙수운 통로와 경구철도가 교차되는 교통요지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발휘하여 내륙교통 허브(Hub)로 발전시켜, 물류 및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2006년 5월 19일, 국무원은 앞서 공포된 ‘총 36조 의견’ 하위 규정에 해당하는 ‘총 56조 정책 조치(2006년 5월)’를 공포하여, <표 8>에서처럼 7개 부문별 정책목표와 담당 부처를 명시하였다. 또한 ‘중부굴기 업무 판공실’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2007년 1월에 국무원은 ‘동북지구 등 노후공업 기지와 서부대개발 관련 정책에 대비하여 중부 6성 관련 정책 범위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여, 향후 추가되는 ‘중부굴기’ 정책은 기존의 동북진흥정책 및 서부대개발 정책을 참고하여 제정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6개성의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특혜정책을 부여하지 않고, 지역 발전전략에 가장 효과적인 성별 중점산업을 중심

<표 7> 중부굴기 단계별 정책화 과정

시기	주요 정책	정책 주체
2003.10	중부굴기 정책 제시	중공중앙(16기 3중전회)
2004.9	중부굴기 정책 당 방침 채택	중공중앙(16기 4중전회)
2005.3	중부굴기 정책 부처별 진행	국무원/전인대
2006.3.27	중부굴기 정책 관련 법규 제정 지시	중공중앙
2006.4	‘중부지구 굴기의 약간 의견’ 공포(총 36조 의견)	중공중앙/국무원
2006.5.19	‘중부지구 굴기의 약간 의견’의 정책 조치 공포(총 56조 조치)	국무원 및 각 부처
2006.9.26	제1차 중부 투자무역 박람회(호남 장사)	상무부 및 6개성
2007.1	‘중부굴기 정책 범위’ 통지 공포	국무원 및 각 부처
2007.4.13	중부굴기 업무 판공실 설치	국무원
2007.4.26	제2차 중부 투자무역 박람회(하남 정주)	상무부 및 6개성
2007.5.11	‘중부 지구 증치세 감면 범위 확대에 대한 시험 방법’ 공포	국무원, 각 부처, 각 지방정부

자료: 기존 공포 자료 정리하여 저자 작성(2007. 7).

<표 8> 중부굴기 총56조 정책 조치(2006. 5. 19)

목표	주요 조치	주무 부처
식량 생산기지 구축	농촌 자금 보조, 외자은행 지점 설치 장려, 경지 보호, 농민 재교육	재정부, 인민은행, 농업부
에너지, 원재료, 장비제조, Hi-tech기지 구축	대형 석탄기지 건설, 광물 탐사, 중장비, 고속열차제조, BT, 신소재 생산 및 R&D	발개위, 국토자원부, 과학기술부
교통 Hub 및 물류망 구축, 관광업 촉진	도로 항공 내수면 네트워크 구축 및 인프라 확장, 현물 선물시장 조성, 농수산물 가공 거래시장 조성	철도부, 교통부, 민항총국, 상무부, 관광국
중심 도시 육성	성수도와 주요도시간 교통망 구축, 縣 경제발전도모, 빈곤지역 구제	각 해당 부처
개방 확대, 체제 개혁	서부 및 동부지역과 협력 강화, 수출확대, FDI 유치 및 해외투자 장려	발개위, 상무부
공공 서비스 수준 제고	교육 혜택 확대, 보건위생 체계 및 사회보장 제도 확립	위생부, 노동보장부, 교육부
자원절약, 환경보호	장강, 황하, 회하 유역 보호, 수자원 이용 관리, 환경오염 감축	환경보호총국, 수리부, 민정부

자료: 기존 법규 정리하여 저자 작성(2007. 7).¹²

으로 해당지역을 선정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중부굴기 정책이 정식으로 당정(黨政)에서 제시된 지 4년만인 2007년 4월 13일, 중국 중앙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국(經濟司) 주체로 국무원 산하에 ‘중부굴기 업무 판공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중부굴기 정책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정책실행, 조정 및 감독을 위한 제도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¹³

12. 총 56조 정책 조치(2006년 5월) 전문(全文)은 중국 중앙정부 포털인 www.gov.cn의 정책 법규란 참조(검색일자: 2007년 6월 5일).

13. ‘중부굴기 업무 판공실’의 2007년도 업무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처간 협력하여 중부지역 도시에 대한 관련 지원책은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관련정책을 참고하고, 중부지역 현(縣) 지역에 대한 관련 지원책은 서부대개발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서부지역 현(縣) 관련정책을 참고하여 필요한 정책을 제정한다. 이를 위해 중부지역 26개 도시와 동북 3성 도시와 비교를, 또한 중부지역 243개 현(縣)과 서부지역과 비교작업에 착수한다. 둘째, 국무원 산하 각 중앙부처가 중부지역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도록 협조감독하며, 셋째 중부지역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강화하여 중부굴기 정책 진행 중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미리 강구한다. “2007年華創武漢論壇” 新華網(2006/06/24).

IV. 기존 지역별 발전정책과의 비교

1. 서부대개발 정책과의 비교

신중국 설립(1949년)후 기존 지역발전 전략으로는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정책을 들 수 있다. 일부 문헌에서는 장강 삼각주(상해를 중심으로), 주강 삼각주(광둥, 심천, 홍콩을 중심으로), 발해만(북경, 천진을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서부대개발 및 동북진흥정책과 동급(同級)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국무원 산하 해당정책 판공실 설치 여부¹⁴를 기준으로 하여, 3대 지역 발전정책(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만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았다.

2000년부터 시작된 서부대개발 정책은 2050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지역발전 정책으로 3단계(2000~2005년, 2006~2015년, 2016~2050년)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다. 서부대개발 정책의 특징은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인프라를 먼저 구성하고, 2단계에 시장을 조성하며, 마지막 3단계에는 자생적인 발전 기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김동하, 2001: 494).

서부대개발 정책의 목적은 첫째 소수민족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불안요소의 해소이다. 이는 2000년 이후 심화되는 연해동남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소득격차에 기인한다. 둘째, 중국정부는 연해동남에 이어서 경제성장 엔진 역할을 할 지역이 필요하였다. 셋째 연해동남지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천

14. 중국 국무원 판공실의 기능은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무조정실과 유사하다. 즉 주요 중앙부처 및 31개 지방정부에 대하여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업무분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무원 총리에게 전국적인 법규제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해당정책의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역발전정책을 전담할 국무원 판공실이 설치되었다는 의미는 중앙정부가 해당지역 발전을 위해서 각 부처와 다른 지방정부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할 채널이 구축되었다는 의미이다.

연가스와 철광석 등 에너지 및 광물자원이 매장된 서부지역에 대한 물류망(철도) 개통이 필요했다(원천식, 2006: 66-79).

서부대개발 정책의 1단계가 끝난 2006년 말, 同정책에 대한 평가는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이 투입된 인프라 구축에는 성공하였으나, 시장조성을 위한 역외자본(동부지역의 중국자본과 외자)의 유입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장강지, 서운석, 2005: 44-46). 서부지역에 대한 역외자본의 투자는 자체 내수시장을 가진 사천성, 중경시를 위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현저한 변화를 감지하기 힘들다. 이는 동서 간 평균 1,000km를 상회하는 긴 물류 연장선과 이에 따른 기업의 원가부담에 기인한다.

<표 9> 중국의 3대 지역 발전정책의 비교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해당지역	12개 성, 시, 자치구	3개성	6개성
정책 개시연도	2000년 (~2050년까지)	2003년	2005년
목표 (전략, 정책)	-서부권 인프라 구축 후 시장 조성 -자원 에너지 개발 -지역 안정	-노후 공업기업 개조 -산업구조 Upgrade	-식량, 에너지, 원재료 기지 육성 -노후 공업기지 개조 -교통 Hub 조성
실시 방법	-중앙 재정투입 인프라 구축 -외부 자원 유치	-국책은행 대출을 통한 기업 개조 유도	-부가가치세 개혁에 따른 혜택 부여 (정책금융지원 非강제)
관련 법규 제정 현황	-국무원 정책 통지 -관련부처 혜택 법규 제정 -지방법규 제정	-국무원 정책 통지 -관련부처 혜택 법규 제정 중 -지방법규 제정 중	-국무원 정책 통지 -관련부처 혜택 법규 제정 준비 중 -지방법규 제정 준비 중
국무원 판공실 설치	2000. 3	2004. 11	2007 4
주요 문제점	-장기간 동안 정책 실효성, 환경변화 -물류난 해결 난망 -非경제요인 우선	-시장(기업)에 대한 문제, 정부 해결 시도 -3성 간 격차 상존	-WTO 가입에 따른 정부 지원 한계 -三農문제에 따른 난제 상존

자료: 기존 자료 정리하여 저자 작성(2007. 7).¹⁵

15. 서부대개발 정책 관련 내용은 '국무원 서부지구 개발 영도소조 판공실' 홈페이지 <http://www.chinawest.gov.cn> 참조. 동북진흥정책 관련 내용은 '국무원 동북진흥 판공실' 홈페이지 <http://chinaneast.xinhuanet.com> 참조. 중부굴기 정책 관련 내용은 '안

기존 문헌에 따르면 서부대개발 정책은 정책수행 목적이 경제 및 정치에 있으나, 정치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이 있다는 점이 중부굴기 정책과 대표적으로 다른 점이다. 또한 <표 9>에서처럼, 서부대개발 정책은 대규모 지역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이며 정부재정이 요구되는 지역발전 전략이나, 중부굴기 정책은 일정규모 지역에 대한 미시적인 정책이며 성정부 및 기업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물류망 구축과 중점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성간 협력이 요구되는 점이 기존정책과 다르다.

또한 세제(稅制)상의 특혜는 중국정부가 2007년 3월에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을 공포함에 따라 폐지되게 되었다. 신기업소득세법은 2008년부터 모든 외자 및 내자기업 등의 소득세율을 25%로 통일하였으며, 예외적으로 감면세율 적용기업을 하이테크기업(15%), 중소영세기업(20%)으로 한정하였고, 5년간의 유예기간(기존 감면세 수혜기업 유지 가능)을 거쳐 2013년 이후 전면적으로 통일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¹⁶

중국의 WTO 가입 후, 서부대개발 정책의 조정건의를 통해 이미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직접적인 서부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서부지역 내 기업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혜택부여와 정책금융의 서부권 우선지원이 대표적이다(張鴻, 2003: 124-126).

휘성 중부굴기 판공실 홈페이지 <http://midchina.xinhuanet.com/> 및 '호북성 중부굴기 판공실' 홈페이지 <http://www.zhongbu18.gov.cn/> 참조(검색일자: 2007년 6월 7일).

16. 중국정부는 외자와 동남 연해지역의 기업을 서부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국가급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 개발구에 준하는 기업소득세 우대 혜택을 제시했다. 일반 중국기업이 부담하던 소득세율 33%(지방세 3% 포함)에 대비하여 경제특구 외자기업은 15%, 주요도시 생산형 외자기업은 24%의 저세율을 향유하였고, 감면세율(Tax Holiday)은 생산형 외자기업의 경우 2면 3감(이익 발생연도부터 기산하여 2년 면세, 그 후 3년간 50% 면세)의 혜택을 향유하였다. 또한 이중 수출비중 70% 이상의 생산형 외자기업은 2免 3減 종료 후 계속하여 세율을 50% 면제한 것이 이전 기업소득세법이었다. 신기업소득세법 내역은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중국투자뉴스 43호(2007. 3. 16) 참조.

2. 동북진흥정책과의 비교

동북진흥정책은 오랜 기간동안 중공업기지 역할을 해온 동북 3성에 산재한 노후 공업기지의 개조(Reorganization)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동북 지역 공업은 중공업 분야에 치중되고 있으며, 국유기업 비중이 전국적인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비록 동북3성 중의 한 곳인 요령성은 연해지역에 있으나, 경공업 분야의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을 위주로 내수와 수출로 성장하였던 동남연해지역과 비교하여 민영화와 시장경제 발전이 더디었다.

정치적으로 동북진흥정책은 2002년에 후진타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첫 번째 지역 발전전략이기도 하다.¹⁷ 2002년 11월에 16회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동북진흥정책이 확정되었으며, 2003년 10월 중국정부는 1차로 동북 3성 주요 기업의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00개를 선정하여 총 61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04년 11월에는 국무원 산하에 ‘진흥 동북기지 노후공업기지 영도소조’가 발족되었다.

동북진흥정책의 목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영화와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동북 중공업의 우위성을 되살려 낙후된 중공업기지를 새로운 중공업기지로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서부대개발은 인프라 건설을 위주로 재정투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해, 동북진흥정책은 원칙에 있어서는 자기책임, 대외 개방 등 시장원리에 의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100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제공은 정부재정이 아닌 은행과 기업 간의 거래행위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전혀 강제적인 개입을 한 바가 없다. 다만 국책은행(국가개발은행)을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였고, 기업과 프로젝트 평가는 대출 은행에 의해 결정되었다.¹⁸

17. 상해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 개발에 치중한 장쩌민 정부를 산동-상해 결합정권으로 칭하기도 한다(정영록, 2002: 9-10). 그러나 후진타오 정부의 지역발전전략은 어느 특정지역을 겨냥했기보다는 ‘脫상해, 脫동남연해’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 100개 프로젝트를 지역별로 보면 요령성 52건(총투자액의 72.5% 점유), 흑룡강성 37건, 길림성 11건이었다. 대상업종의 주종은 장비제조(설비)공업, 원재료산업, 농산품 가공산업 등 3분야였다(강진창, 2004).

따라서 동북진흥정책의 성공요인 역시 외자유입이 가능한가에 놓여있다. 동북지역의 장점은 고학력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한 점, 러시아 몽고 한국 등으로 해외로 연결이 가능한 교통 허브(Hub)라는 점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제2의 광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존재한다(강승호, 2005: 205-208).

오랫동안 계획경제 체제에서 경제운동을 경험한 동북지역 사람들의 특징은 구체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 이는 '취업은 정부에, 발전은 정책에 의존한다'라고 표현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진흥정책은 후진타오 신정부의 관심으로 보다 단기간에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는 이전 장쩌민(江澤民) 정부가 상해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 지역을 위주로 지역발전 전략을 구사했던 것과 차별되기 때문이다(강진창, 2004: 187-188).

동북진흥정책과 중부굴기 정책에서의 국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 역할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정부(중앙정부 및 성정부)가 선별한 개별 프로젝트에 정책 자금을 공여한 반면, 후자는 은행 자체심의에 따른 정책금융의 공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2006년 9월, 국가개발은행은 중앙부처인 상무부와 150억 위안 규모의 '중부지역 개발구 기초설비건설 대출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의향서에서 양자는 '국가개발은행의 독립적인 대출 심의를 보장하고, 시장화 절차에 따라 대출을 진행한다'라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¹⁹ 즉 중부굴기 정책에서 국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의 역할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대출 역시 시장원칙에 따를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중국정부가 동북진흥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방법 중 하나는 2004년 7월부터 동북 3성에 시범 적용했던 부가가치세 개혁방안이다. 즉 이전의 지역 발전정책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기업소득세 감면정책이 WTO 가입으로 폐지되고, 그 자리를 부가가치세 개혁방안이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다.²⁰

19. 中新社(2006/09/28).

20. 동북진흥정책을 위한 부가가치세 개혁조치는 동북 3성 기업(외자 포함)이 장비제조업,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농산품가공 분야 등에서 설비투자를 할 때 부가세를 감면받는 게 골자다. 이외에도 동북 3성에서는 유전 및 탄광에 대한 자원세 인하, 지방세 우대조치가 실시되었고, 국유기업으로부터 병원, 학교 운영 등 사회복지기능

2007년 5월, 동북공정 판공실은 ‘동북진흥 3년 평가보고’를 발표하며, 3년간 동북 3성의 GDP, 수출입, FDI, 가계소득 등이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특히 2006년 말 요령성 대형국유기업의 85%가 주식회사로 전환되었으며, 총 1,800억 위안의 자금이 국유기업에 투입되어 자주혁신 능력이 강화 되었다고 자체성과를 공표하였다. 그러나 반면 요령성 사회과학원 왕광린(王廣林) 부소장은 동북3성의 최근 성과는 중화학공업의 주기적인 호황 때문이며, 동북진흥정책에 기인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부실채권 해결을 위한 금융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KIEP 북경사무소, 2007: 1-6).

V. 중부굴기 정책의 한계

1. 중부지역 산업구조

중부지역은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중점산업이 중복되는 산업구조 상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표 10>은 중부지역 중점산업 현황과 해당산업이 성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헌도를 보여주고 있다. 중부굴기의 초점중 하나는 이들 지역의 시장화이며 시장화의 중심에는 공업화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부지역은 첨단산업보다는 중공업형 장치산업이 전통적인 중점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석탄, 비철금속 등 자원형 산업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은 산업이 다원화 되어 있지 않고, 특정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중국최대 석탄산지인 산서성의 경우, 석탄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헌도는 73.7%에 달한다. 호남성은 연초가공업이 48.7%에 달하는 불균형적

을 떼어내는 개혁도 시범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160여 개 첨단기술개발 및 공장개조 프로젝트가 200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북 3성 진출 외 자은행에 우선적으로 허가를 내주기로 한 것도 정부 지원책의 일환이다(동북공정 판공실 자료 종합. 검색일자 2007년 6월 8일).

<표 10> 중부지역 중점산업 현황 및 경제 발전 공헌도

지역	중점산업	경제성장 공헌도 (%)	지역	중점산업	경제성장 공헌도 (%)
호북	자동차 산업	24.26	안휘	석탄 채굴, 선풍업	12.46
	철강 산업	10.1		음료 제조업	9.61
호남	연초 가공업	48.7		전력, 열공급	9.01
하남	전력, 열공급	17.02	강서	비철금속 제조	14.38
	석탄 채굴, 선풍업	15.46		전력, 열공급	11.61
	비철금속 제조업	11.87		자동차 산업	10.99
산서	석탄 채굴, 선풍업	73.75		의약 제조업	10.6

자료: 領導決策信息(2001).

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부굴기 정책효과가 일부기업에만 국한되고 전체 산업구조 업그레이드까지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남성과 안휘성 그리고 강서성은 전력, 열공급을 중점산업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이들 3개성의 산업기반이 취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력 및 열공급은 해당 도시의 화력 발전소와 난방 열공급 시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다. 즉 도시 인프라에 해당되는 산업군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발전소가 성 중점산업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호북성은 중부지역 중 가장 경제가 발전된 지역으로, 이는 중국 4대 철강사 중 하나인 무한강철과 중국 2대 자동차 메이커인 동풍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철강, 자동차 제조업의 발전에 기인한다. 또한 장강삼협댐의 완공으로 수력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자원 개발 및 전력자원 산업이 최근 중점산업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 11>은 중부지역의 중점산업과 11.5 계획기간 성장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6개 성의 중점산업을 살펴보면, 철강, 자동차, 연초, 전력 등이 여러 성에서 중복하여 중점산업으로 선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상된다.

중국 지방정부 관리는 재임기간 동안 치적(治績)에 따른 평가를 받으며, 그 평가의 대부분은 GDP 증가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표 1> 중부지역 중점산업 및 11.5기간 경제성장 목표

지역	중점산업	11.5기간 연평균 성장률 목표
호북성	철강, 자동차, 전력, 전자재, 연초	10% 이상
호남성	철강, 기계, High-tech산업, BT, 연초	10% 이상
강서성	자동차, 항공, 특수 금속, 중의약, BT, 가전, 식품, 정밀화학, 신소재(전자재)	11%
안휘성	섬유, 자동차, 원재료, 에너지, 화학공업, 가전	10% 이상
하남성	농업, 화력발전, 알루미늄	10%
산서성	석탄, 전력, 코크스, 철강, 기계, 화학공업	10% 내외

자료: 각 성 인민정부 홈페이지 및 성발전개혁 위원회 11.5규획 자료(2007).

(김동하, 2007: 311-315). 해당지역의 중점산업 선정은 성장(省長) 혹은 공산당 성서기(省書記)의 평균 임기인 4년 동안 가장 확실하게 성과를 시현할 수 있는 산업이 선정된다. 따라서 새롭게 성의 중점산업에 포함된 생물공학(Biotechnology), 신소재산업, High-tech 산업 등 보다는 이미 산업구조를 보유한 기존의 중공업부문에 성의 자원이 과다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성간 협력과 조화가 관건인 지역발전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적인 경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2. 효율적 정책 지원수단의 부재

2002년 중앙정부는 동북진흥정책의 실시를 결정한 후, 2004년 7월 1일자로, 동북지역 8대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혁방안을 실행하였다. 중국의 부가가치세는 생산형인 것이 특징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준을 정할 때 자본재 투입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크게 생산형(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과 소비형(세계 대부분 국가)으로 구분되는데, 생산형은 총수입 금액에서 원자재 등의 중간재 투입액만을 공제하는 반면, 소비형은 중간재와 자본재 투입전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생산형보다 과표가 줄어들게 되고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중부지역 기업의 특징은 노후된 에너지, 원자재, 기계제조를 위주로 하는 중공업이다. 이들 기업은 현행 생산형 부가가치세 세제(稅制) 아래서는 기업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고정자산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감면세 하는 것은 이들 노후기업이 신설비로 기업을 개조(reorganization)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2006년 말 기준으로 2년 반 동안 동북 3성 기업은 고정자산구매에 따른 징수액 121.93억 위안 중 74.3%에 해당하는 90.62억 위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급액 90.62억 위안은 2005년도 동북 3성 기업소득세 총액의 86.56%에 달하며, 중국전체 지방세입의 0.6% 수준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2006년 말 중국전체 국유기업 부실채권의 50%(1400억 위안)를 보유한 동북 3성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12> 중부지역 부가가치세 감면 방법

해당지역	산서성	太原, 大同, 陽泉, 長治
	안휘성	合肥, 馬鞍山, 蚌埠, 蕪湖, 淮南
	강서성	南昌 萍鄉 景德鎮 九江
	하남성	鄭州 洛陽 焦作 平頂山 開封
	호북성	武漢 黃石 襄樊 十堰
	호남성	長沙 株洲 湘潭 衡陽
해당 업종	장비제조업	전기기계, 통신설비, 컴퓨터, 항공, 철도
	석유화학공업	코스크, 석유 가공, 화섬, 의약, 고무, 플라스틱
	철강업	철강 및 비철금속의 제강, 압연 가공
	자동차제조업	자동차 제조
	농산물 가공업	식품, 음료, 방직, 피혁, 목재, 가구, 제지
	채굴업	석탄, 철광석, 비철금속, 비철금속, 기타 채굴
	전력업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 전력 공급
	하이테크 산업	국가 하이테크 산업 관련 규정에 속한 품목
공제 가능 매입 세액	-고정자산매입(실물투자와 수증 포함) -자기제작 고정자산에 사용 위해 매입한 재화 또는 증치세 과세 용역 -금융리스 방식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 임대측이 증치세를 기 납부한 경우 -고정자산에 지출한 운송비 관련 매입세액	

자료: 國家稅務總局(2007).²¹

21. 법규 전문은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 www.chinatax.gov.cn 정책 법규란 참조(검색일

이러한 성과를 근거로 중앙정부는 2007년 5월 11일자로 ‘중부지구 증치세 감면범위 확대에 대한 시험방법’을 공포하여, 같은 내용의 세제 혜택을 중부 지역에 확대하였다.

이번 조치는 고정자산의 매입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한 우대조치로 요약된다. 특징은 혜택지역을 중부 6개성 전체가 아닌 26개 낙후공업도시로 한정하였으며, 혜택산업도 8대 대분류의 37개 업종으로 제한하였다. 특히 <표 12>에서처럼 6성의 중점산업이 포괄되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철강, 자동차, 석탄, 전력, 농산품 가공업이 포함되었고, 연초업은 제외되었다. 또한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중인 고오염, 고에너지 소비산업의 도태를 위하여, 알루미늄 전기분해 및 코크스 가공업을 제외하였으며, 철강의 경우 연간 조강 생산 200만 톤 이하(특수강 50만 톤 이하, 철합금은 10만 톤 이하)도 제외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은 중부굴기를 지원할 대표적인 정책이 부가가치세 감면혜택뿐일 정도로 제한적이며, 또한 부실채권이 많고 업종이 중공업 제조로 단순화 된 동북 3성과는 달리, 중부지역에서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표 12>의 업종 중에서 철강, 자동차는 중앙정부가 이미 공급과잉을 우려한 산업으로 지역차별적 모순이 존재한다.

3. 정책의 호복성 치중 가능성

동북진흥정책의 중심이 요령성이라면, 중부굴기 정책은 호복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중부굴기’라는 경제 발전전략의 개념은 이미 1980년대 중반 호복성 발전전략에 등장한 바 있다. 또한 <표 8>의 총 56조 정책조치(2006년 5월)를 보면 7가지 중점정책목표 중 식량생산기지 구축을 제외한 6개 목표는 모두 호복성에 해당된다. 즉 호복성은 장강삼협 프로젝트의 중심 도시이며, 해운과 철도(京九鐵道)망이 교차하는 교통허브(Hub)의 조건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서부대개발에서 예를 보듯 1차적으로 물류망 인프라에 중앙정부의 재정적 배려(정책금융 우선 배정)가 있을 경우, 호복성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물류 인프라 개선을 바탕으로 “FDI유치-지역경제발전-투자환경개선-외자유치확대”와 같은 선순환이 예상된다. 또한 중점도시 육성전략에서도 철강(무한강철), 자동차(동풍기차)산업을 보유한 호복성 무한시 권역에 큰 비중이 주어질 전망이며, 서부지역과의 협력 발전전략에서도 서부대개발 중점도시인 사천성 및 중경시와 맞닿아 있는 호복성이 혜택을 봄에 따라 중부지역내 불균형적 발전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실제로 호복성은 11차 5개년계획²²에서 ‘동인서련, 승동계서(東引西聯, 承東啓西) 전략’, 즉 동부지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부지역 진출을 추진하려는 발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바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중부굴기 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2005년부터 본격 추진 중인 중부굴기 정책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도출한 전망과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부굴기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서 여러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추진될 전망이다. 즉 중부굴기 정책은 12개 성, 시, 자치구에 대한 50년간의 장기 지역개발 전략인 서부대개발 정책보다는 짧은 기간에 집약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동북 3성 국유기업으로 중점 정책목표를 특

22. 호복성은 동부지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부지역 진출을 추진하려는 발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동부지역에서 외국자금, 기술, 인재, 정보 및 관리를 수입(東引)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부지역의 경제 발전에 참여(西聯)하며, 동부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承東)하여, 서부지역 시장 개발(啓西)에 참여하는 것이다. 湖北省人民政府發展研究中心(2006: 77).

화시킨 동북진흥정책 보다는 긴 기간을 가지고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각 지역 발전전략 기간을 살펴보면, 서부대개발 정책은 50년 장기정책으로 그 성과를 현재 후진타오 정부가 향유할 수 없다. 이에 반해 2003년에 후진타오 정부에 의해 착수된 동북진흥정책은 현 정부의 집권 2기가 될 2013년까지 10년 내에 가시적인 결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부굴기 정책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요소와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중부굴기 총 56조 정책 조치(2006년 5월)를 분석하면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다루어야 할 삼농(三農) 문제와 교통허브(Hub) 구축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특정기업에 해당될 호복성 자동차 산업 및 철강업, 산서성 석탄업, 강서성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노후기업 개조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중부굴기 정책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접근법은 선별적이며 다양하게 구사될 전망이다.

둘째, 중부굴기 정책은 중국에 투자를 영위하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중부지역을 연해내륙 거점전략 대상지로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WTO 가입으로 중국의 투자환경은 매년 급변하고 있다. 신기업소득세법 공포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특혜는 철폐되었으며,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중국정부는 총 1,300여 개에 달하는 '가공무역금지 상품목록'을 공포한 바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²³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7년 3월 말 현재,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중 중부지역에 대한 비중은 투자건수로는 1.33%, 투자금액으로는 2.8%에 불과하다. 이는 최대 투자처인 산동성(건수 35.9%, 금액 26.3%)과 주요 투자처인 요령성(건수 13.8%, 금액 7.44%) 및 강소성(건수 8.29%, 금액 21%)과 비교하여 극히 낮은 수준이다.

서부대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는 발전전략중 하나로 동남연해지역에 위치한 외국기업 및 중국기업의 서부 이전을 제시한 바 있으나, 물류 인프라 미비와 시장 미조성으로 실적은 미비한 상태이다. 그러나 양호한 교통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중부지역의 경우, 이미 연해지역 노동밀집형

2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www.koreaexim.go.kr) 참조(검색일자: 2007년 6월 8일).

업종에 투자한 한국기업에게는 생산기지 이전 혹은 제2의 생산기지 투자 대상지가 될 수 있다. 즉 시장이 있는 연해지역과 물류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중부지역에 생산기지를 두는 연해-내륙 거점전략을 구사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강승호. 2005.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p. 205-208.
- 강진창. 2004. 「중국의 동북진흥정책 분석」. 『민족연구』 13권. 한국민족연구원. pp. 187-188.
- 김동하. 2001.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이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 『중국연구』 제27권.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pp. 494.
- 김동하. 2007. 『중국 거시경제정책과 철강산업』. 한국철강신문사. pp. 311-315.
- 서운석. 2006. 「중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 효과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19집 3호. pp. 121-144.
- 원천식. 2006.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의 추진현황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pp. 66-79.
- 이영조, 박정자. 2000. 「중국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균등화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행정논집』 제12권 3호 pp. 515-533.
- 장강지, 서운석. 2005.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진행과정 및 효과분석-서부대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4권 1호. pp. 44-46.
- 정영록. 2002. 「중국의 경제개혁 평가」. 『현대중국연구』 제4권 1호. pp. 9-10.
- 최의현. 2004.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의 변화와 三農 문제」. 『동북아경제연구』 제16권 제2호. pp. 183-184.
- KIEP 북경사무소. 2007. 「중국 동북진흥전략 3년의 평가와 과제」.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07-13호)』 8월 9일. pp. 1-6
-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2007. 「중국투자뉴스(43호)」 3월 16일
- J.F. Brun, J.L. Combes, M.F. Renard. 2002. "Are there spillover effects between coastal and noncoastal regions in China?" *China Economic Review* 13. pp. 168.
- 楊云彥. 2003. 「經濟全球化就業替代與中部地區的邊緣」. 『中南財經政法大學學報』 第3期. pp. 45.
- 高伯文. 2004. 『中國共產黨區域經濟思想研究』. 中共黨史出版社. pp. 34-77.
- 領導決策信息雜誌社. 2001. 「十一五中部地區實現崛起的形勢分析」. 『領導決策信息』 第27期. pp. 4-5.
- 李衛武. 1988. 「實現中部崛起: 湖北經濟發展模式的選擇」. 『湖北社會科學』. 湖北省

- 社會科學院. pp. 5-6.
- 王雷. 2006. 「對我國地區發達程度的進一步劃分」. 『統計與決策』第2期. 湖北省統計局. pp. 51-53.
- 張鴻. 2003. 「加入WTO與我國西部大開發的政策調整」. 『探索』第3期. pp. 124-126.
- 鄧小華. 2004. 「中部地區是我國區域經濟協調發展的重要組成部分」. 『中國投資』第5期. pp. 122-123.
- 國務院發展研究中心. 2006. 『中部崛起戰略與對策』. 經濟科學出版社. pp. 9-17.
- 湖北省人民政府發展研究中心. 2006. 『聚焦中部崛起』. 中國發展出版社. pp. 77.
- 郭生練. 2005. 『中部發展的現狀, 戰略與對策研究』. 經濟管理出版社. pp. 66.
- 周紹森. 2006. 『中部崛起論』. 經濟科學出版社. pp. 21.
- 趙凌云. 2007. 『2006年中國中部地區發展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pp. 210-213.
- 中國國家統計局. 2007. 『中國統計年鑑(2006)』. 中國統計出版社.

A Study on China's Rising Strategy in Central Region of China

Dong ha, Kim

Business Analyst of POSCO Research Institute

Since 2005, the Chinese government has executed a central China development policy targeting six provinces such as Shanxi, Anhui, Jiangxi, Henan, Hubei and Hunan provinces. In May 2006, the State Council clarified the purposes and goals of the policy by announcing, "The Act on Rising Strategy in Central Region of China (May, 2006)." Accordingly,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Rising Strategy in Central Region of China was set up in the State Council in April 2007 to decide on the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the policy. For the last two year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central region rising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Rising Strategy in Central Region of China which is recently becoming more concrete. The paper investigated the overview of central China and its characteristics, and examined the purpose of the policy as well as policy-making procedures. The paper also focused on recent changes in the direc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hat transformed from non-equilibrium development to a re-equilibrium one by implementing new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est Development Strategy that

started in 2000 and the Northeast China Redevelopment Strategy that began in 2003, the paper examined how such a change in the direc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fluences the Rising Strategy in Central Region of China. Also, the paper investigated the limitations of the Rising Strategy in Central Region of China.

In conclusion, the paper tried to forecast the direction of the policy, and drew some suggestions for Korean companies that are operating in Central China. First, the policy is expected to be carried out for a midterm or long-term period by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provincial governments of China. Second, Hubei province will have the initiative of the policy. Third, the policy can provide more options for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the Korean companies in China which need more diversification in business areas.

Key words: Chinese Regional Development, Chines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e Rising Strategy in Central Region of China, Policy of Prosperous Central China, Policy of Rising Strategy in Middle China

